나주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 다음달 문 연다

aT, 5년 간 10억원 지원…다음달 13일부터 매주 금·토 빛가람 호수공원
우수 농산물·가공식품 판매자 모집…문화 공연·소비자 구매 이벤트 다채

나주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지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문을 연다.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농업진흥재단은 지난 6일 aT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개설 운영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이행약정에 따라 aT는 올해부터 5년간 바로마켓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홍보·교육비 등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에서는 10월 말 부터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50농가가 참여하는 '바로마켓 나주점' 개설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다.

로컬푸드직거래 장터 등에 우수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출하하는 농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자를 모집한다.

바로마켓 나주점에 참여할 농가, 농업법인은 나주시청, 나주농업진흥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참여 농가에 카드단말기, 냉장고 등 기본 물품을 지원한다.

또 소비자를 위한 경품·농특산물 증정 이벤트,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농촌체험과 연계한 특색있는 직거래 장터를 만들 계획이다.

바로마켓 나주점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웅범 나주 농업진흥재단 부이사장은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농가에게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판로를 확보해주는 것이 바로마켓 나주점의 목표"라며 "aT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바로마켓 나주점을 전남도를 대표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육성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지난 6월 17일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상생푸드 프리마켓'이 열렸다. 〈나주시 제공〉

화순 '만원 임대주택' 두번째 입주민 추첨

17일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2차 추첨 대상자 495명 선정

화순군이 올해 두 번째 진행하는 '만원 임대주택' 입주민 추첨을 오는 17일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진행한다.

화순군이 올해 하반기 진행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공모에는 모두 929명이 신청서를 낸 가운데 495명이 2차 추첨 대상자에 선정됐다.

모집 분야별로는 청년 473명, 신혼부부 22명이다. 나머지 434명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탈락했다.

화순군은 2차 모집에 청년 26호·신혼부부 26호를 공급하려 했지만, 신혼부부 추첨 대상자가 22명에 그치면서 남는 4호 물량을 청년 분야에 배정했다.

오는 17일에는 화순읍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적벽실)에서 추첨 행사를 열고 최종 입주 대상자와 동호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첨은 본인 참석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 추첨도 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달 말부터 입주할 수 있고, 입주 즉시 화순군에 전입 신고해야 한다.

추첨 대상자 및 추첨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 사항 또는 청춘 들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추첨 행사에 불참한 경우 입주 포기로 간주한다"며 "추첨 당일 일정을 잘 조율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가을의 손짓 '함평 꽃무릇 축제' 준비 착착

15~17일 용천사 꽃무릇공원
트레킹·발효주 빚기 체험 등
안전 관리 진행 상황 점검도

함평군이 오는 15일 개막하는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 24번째 치르는 함평모악산꽃무릇축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해보면 용천사 꽃무릇공원에서 열린다.

이상익 함평군수와 함평군 직원들은 11일 용천사 꽃무릇공원을 찾아 전반적인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함평군은 관광객의 안전에 집중해 축제를 치를 방침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의 자연 100선'에 선정된 꽃무릇을 감상할 수 있다.

모악산 정상에서 꽃무릇 축제를 알리는 손수건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 자신의 이름으로 1만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모악산 꽃무릇 착한 트레킹'도 진행한다.

숲 해설사와 꽃무릇 숲을 거니는 '꽃무릇 숲 나들이 체험'도 열린다. 또 우리나라 전통술을 빚는 기법을 배우는 '전통발효주 만들기 체험', 푸른 잔디밭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꽃무릇 소풍'도 관람객을 기다린다. 꽃무릇을 사진으로 추억할 수 있는 촬영공간도 마련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 처음 군 주관 행사로 꽃무릇 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관광객들이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갈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이상익(맨 오른쪽) 함평군수가 11일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15~17일)가 열리는 행사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장흥 장동면 내반·장항마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장흥군 장동면 내반마을과 장항마을이 최근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선정됐다.

내반마을과 장항마을은 선정을 기념해 마을회관 앞에 현판을 달았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산불을 줄이기 위해 마을이 자발적으로 불법 소각을 막자는 산림청 주관 운동이다.

내반마을과 장항마을 이장은 주민 대표로 '소각 근절' 서약을 했다. 최근 산불 조심 기간에 두 마을은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 두 마을 주민들은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우수 마을에 선정됐다.

문수연 장흥군 장동면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감사를 전한다"며 "장동면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 장동면 내반마을 주민들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을 열고 선정을 기념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담양군, 성인병 예방 '저염식이 영양교육'

담양군 보건소가 최근 강쟁리 두곡마을을 찾아 저염식이 영양 교육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은 고령 주민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을 찾아 '저염식이 영양교육'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담양군은 최근 담양읍 강쟁 2구 두곡마을을 찾아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등 기초 검사를 해 건강 문제 여부를 알아봤다.

이후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통해 고혈압·당뇨 식이요법, 이상지질혈증 식이요법 등 각 질환에 대한 예방법을 알려줬다.

또 양념장을 뺀 월남쌈 만들기를 실습하며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했다.

노년기에는 짠맛을 느끼는 감각이 감퇴하면서 염분 섭취량이 늘어나기 쉽다.

담양군은 염분 과다 섭취로 인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저염식으로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배워 실천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담양군 관계자는 "고염식 습관 변경이 쉽지 않겠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저염식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보건소(061-380-2536)에 문의하면 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 신중년, 체중 감량하고 건강 찾고

군보건소, 건강교실 참가자 모집…11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강진군보건소가 중년 여성들을 위한 '신중년 다이어트 건강교실' 2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강진군보건소에 따르면 '신중년 다이어트 건강교실' 2기는 최근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만과 관련해 증가하고 있는 강진군의 비만율을 개선하고 중년 여성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이끌어 만성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건강교실은 오는 11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전문강사의 운동프로그램을 위주로 한의학적 건강 관리, 영양 식단 제공 등 건강영역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5회 운영에 61명이 참여했으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실효성 있는 운동프로그램과 규칙적이고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해 중년 여성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비만으로 인한 군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확대

20일까지 신청자 추가 접수…한 세대 중복 수혜 불가

화순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를 오는 20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화순군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다.

한 세대 중복 수혜는 할 수 없다.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거주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화순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공익수당은 오는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경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